기숙사 선발조건, 사회배려자 우선

도교육청, 원거리 통학자도 포함 운영 규정 차지법규 제정
학교장, 기숙사 학생 기본권 침해 · 성적 차별 금지해야

전북도교육청이 기숙사 선발인원의 20~3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했다.

28일 도교육청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공사립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인원의 20~30%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전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 군산, 익산의 일반고는 입사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입사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선발대상(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학생을 별도 모집해야 한다. 신청인원이 선발비율에 미달한 경우는 예외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기숙사 학생의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 편성·운영 등 경쟁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를 통해 기숙사 생활수칙 등을 제정할 수 있게 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정 제·개정, 기숙사 운영비 등을 심의토록 했다. 한편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2018학년도 입사생부터는 제정된 운영규정의 학생선발 기준을 적용해 입사학생을 선발하도록 안내했다. /정해은 기자

"제약산업시장 선도 전문 연구인력 양성 시급"

▶ 신약개발 인재양성 정책세미나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에서 임상 등 약사 역할 증대돼"

지난 2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약개발 인재양성'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 약사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광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지난 2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약개발 인재양성'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병환 대전대 융합컨설팅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 경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바이오'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임을 강조하고 바이오와 기술사업화를 동시에 아는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 교수는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의약품 조제 중심에서 임상, 신약개발 및 제약회사 의약품 생산관리, 바이오경제 지원 등으로 약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임상 약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여재천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 전무이사는 앞으로 '스타트업 신약개발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약과학자' 등과 같은 인력 양성이 필요한 만큼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여 사무국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게 되면서 신약 개발 패턴이 바뀌고 있다"면서 "신약 연구개발의 혁신 성과를 시장 가치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약과학자' 등과 같은 인력 양성이 필요한 만큼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가 올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한중청소년교류지원사업' 주관 기관에 선정돼 중국 학생들을 대학에 초청,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을 지원한다.

우리문화 진면목, 중국 학생들에게 전파

'한중청소년교류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따라
전북대, 중국 · 한국학생 100여명 대상 문화체험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올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한중청소년교류지원사업' 주관 기관에 선정돼 중국 학생들을 대학에 초청,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욕구가 많은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친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매년 방학 중 외국 자매결연 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필링코리아를 진행하는 전북대가 중국인 학생 70명과 한국학생 30명 등 10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한국 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1차로 중국 장안대학과 길림농업과기학원 학생 45명과 한국학생 20명을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전북대는 지난 27일 2차로 하북경무대학과 산동외국어직업학원, 한국학생 등 35명을 초청해 발대식을 갖고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시행한다.

전북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옥마을에서 예절체험과 비빔밥 만들기, 태권도 체험, 풍물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주 한옥마을과 임실필봉문화촌, 무주 태권도원 등도 찾아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체험케 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팀을 이뤄 친교 활동을 실시하고 결과 발표회를 통해 한중 문화 비교 발표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2019학년도 대입전형설명회 연다

도교육청, 내달 9일
고 1~2학년생 대상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12월 9일 고 1~2학년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수능학습법 및 대입전형설명회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입 정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12월 23일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수능성적 결과 분석 및 정시지원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갖는다. 대면 상담실도 다시 가동한다.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전북교육청 7층 대입진학지도지원실에서 대면 상담실을 운영한다. 군산과 익산도 12월 28일~29일 양일 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대면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시험이후 고 3 학년생을 대상으로 평소 교실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독서교육 등 교과 통합 프로젝트 학습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안내했다. 특히 교과 수업은 4교시내로 운영하거나 전일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정해은 기자

문화소외계층 대상 '라스트포원 비보이 댄스컬' 학생 공연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읍, 면 소재 중고생을 대상으로 문화 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정서 함양을 위해 '라스트포원 비보이 댄스컬' 학생 공연 프로그램을 오는 29일 오전 회관 체육관에서 운영한다.

라스트포원의 세계대회 우승 과정을 그린 퍼포먼스 작품인 'One Dream'과 학생들이 적접 무대에 올라와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인 'Follow Dream', 소품과 사물을 활용한 비보이 댄스컬인 'Special Dream'으로 구성하여 공연할 예정이며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열정과 도전,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비보이 공연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읍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